곡성군 농업 살리기 올해 455억 투자

군 예산의 20% … 시설원예 등 상업농 육성

한우 직판장 설치 등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

곡성군은 올해 군 전체예산의 20%에 달하는 예산 455억원을 농업분야에 편성,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한·미 FTA 체결 등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41.3% 증가한 455억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군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개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군은 한·미 FTA 발효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과 원예분야, 상업농 육성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억대농 육성사업 달성을 위해 2012년도 원예분야 예산 103억원을 확보해 상업농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의 경우 원예분야 생산액은 ▲멜론·딸기 등 시설원예 367억6900만 원 ▲노지채소 74억7000만원 ▲과수 205억3900만 원 ▲특작 223억9800만 원 ▲화훼 31억16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사업으로는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8억원 ▲멜론클러스터사업 10억원 ▲'개똥쑥' 사업 16억원 ▲과수 35억 원 ▲채소 16억원 ▲화훼·특작 1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곡성 명품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멜론 주식회사(대표 이선재)는 관내 210 농가를 통합해 총 면적 90 ha에서 국내 최고의 멜론을 재배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대만, 말레이시아에 50만달러 어치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과·배·포도·단감·매실 등을 주요 지원품목으로 선정하고 공동출하와 품질 고급화로 오는 2014년까지 상품화율을 30%에서 60%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축산분야는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오는 2014년까지 조사료 자급률 100%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우 암소 직판장 설치와 우수 한우암소 씨암소 확보로 축산물 유통 활성화와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마필산업 육성 ▲꿀벌 주식회사 설립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군은 고품질·친환경 생산시설을 확충해 경쟁력을 갖춘 농가 중심으로 과원의 규모화와 안정성, 신선도 향상을 통해 중규모의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섬진강 천문대 '별자리 여행' 겨울방학을 맞아 곡성 섬진강 천문대를 찾은 학생들이 천체망원경을 들여다 보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문을 연 섬진강 천문대는 주관측실 600㎜ 반사망원경 등 다양한 천체 관측장비를 갖추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고흥 성공아카데미 66회 특강… 군민 교육의 장으로

연 인원 34000명 참석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군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흥군 성공 아카데미'가 7년째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에 처음 실시한 '고흥 성공아카데미'가 66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연인원 3만4000명이 강의를 들었다.

지난 26일 열린 66회차 아카데미는 퍼포먼스 트레이닝 연구소 김창옥 대표를 초청해 '변화를 위한 소통의 지혜'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대표는 "소통이 잘 되어야 내가 평안하고, 내가 평안해야 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원만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며 대인관계에서 소통의 중요성과 또 원활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법을 강의했다.

박병종 군수는 "매회 수준높은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통한 군민의 문화 의식 함양은 물론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에는 교육발전기금 목표액인 100억원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2월 강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종합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를 초청해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을 주제로 열릴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 새얼굴

"지리산 생태탐방 연수원 조성 추진"

박 기 연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소장

"청렴한 업무로 자연과 지역주민이 행복한 지리산 국립공원을 만들겠습니다."

1일 부임한 박기연(49) 지리산 국립공원 남부사무소장은 "합리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려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력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립공원 자원봉사센터 건립과 생태탐방 연수원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출신인 박 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8년 공채 1기로 공단에 입사해 공단본부 기술지원팀장, 공원시설부장 등을 역임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곡성 이장의 날, 주민 대화의 날로

매월 25일 소통 행정

곡성군이 기존 '이장회의 날'을 '주민과의 대화의 날'로 바꿔 소통과 참여행정에 적극 나선다.

곡성군은 매월 한차례 정례적으로 열리는 이장회의를 주민대화의 날로 바꾸고, 관내 기능·단체 임직원과 주민 등 참석자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주민과의 대화의 날 '을 통해 군정 시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등 소통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신뢰도를 높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곡성군 본청의 각 부서장은 '주민대화의 날'에 행정지원담당 면에 출장해 군정을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기는 매월 25일로, 이달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장과 곡성군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청년회 임원 등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논의하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대화의 날 참여자는 군정 홍보사항을 마을주민과 관련단체 회원들에게 홍보·전파하는 역할수행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순천시 14개 기관 단체 학교폭력 대책협 구성

순천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1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학교폭력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학교폭력 대책 협의회'는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 청소년 단체 등 14개 유관기관·단체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는 유관기관 실무자 회의를 갖고 각 기관·단체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상호 연계 운영 및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학교폭력대책 협의회는 실무협의회 협의 사항과 시민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오는 3월중 '순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해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전 북

"시민·현장 중심 시정 펼칠 것"

취임 100일 맞는 이환주 남원시장

"남원의 옛 영광을 되찾는 일,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생동감이 넘치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남원시가 추구하는 시정방향입니다."

오는 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환주 남원시장은 "단순히 오래된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몸짓으로 지금 남원은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남원시정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7일 취임 일성으로 "분열된 시민사회의 화합을 이끌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려 건강하고 행복한 남원, 새로운 남원을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취임후 200여명이 참석한 첫 청원조회에서 시민중심 행정·현장행정·타이밍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모든 행정은 수요자인 시민을 위해 펼쳐야 한다'소신에서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열고 오지마을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 시장은 노인복지관과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연수관광지 조성, 고원선수 훈련장, 추어산업 등 현안 사업장을 방문해 공사로 인해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 사업추진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이 시장은 "남원 미래비전에 걸맞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친환경 코스매틱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시장직속 전담팀과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맞춤형 기업유치, R&D연구소 등을 유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환주 시장은 "올해는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가는데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동 시장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 남원시 산내면 와운마을 주민들이 1일 마을동산에 위치한 '지리산 천년송'(千年松·천연기념물 제424호) 앞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500여년째 당산목인 할아버지 소나무와 할머니 소나무 앞에서 당산제를 지내오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군산~제주 여객선 취항 난항

세창 코델리호 주 3차례 운항 정박 부두 확보 못해

군산과 제주를 연결하는 여객선의 취항이 군산 국제 여객터미널 정박부두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목포에 본사를 둔 ㈜세창은 다음달 취항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객선이 머물러야 할 부두를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창은 군산항~제주항 노선에 그동안 평택항~제주항에 투입한 세창 코델리호(8596t급·정원 900명)를 주 3차례 운항할 계획이다.

여객선 취항이 성사되려면 국제 여객터미널 운영권을 소유한 ㈜석도훼리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석도훼리 측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석도훼리 측은 세창이 요구한 선박 운항 요일이 석도훼리호의 운항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현 군산 국제 여객터미널 부두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군산 지방해운항만청이 조만간 조정에 나설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석도훼리 관계자는 "운항요일을 조정한다고 해도 기후변화가 심한 바다의 특성을 고려하면 세창이나 석도훼리, 승객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경찰 '학교 폭력 예방 전담반' 편성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학교폭력 전담반'을 편성해 집단폭행과 금품갈취 등 교내외 학교폭력 근절예방과 단속활동에 발벗고 나선다.

김제경찰은 최근 학교폭력 전담반을 편성하고 전담 경찰관 3명(박봉성·안용문·김헌)을 배치했다.

학교폭력 전담반은 학교폭력 근절을 목표로 관내 각 학교를 순회하며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는 한편 초·중·고 하교 지도와 교내외 우범지역 순찰을 통해 범죄취약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된다.

또한 전담반은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근절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범방지 및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초점을 맞춘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여행사 리베이트' 총선 예비후보 조사

전북경찰 수사 가속도

도내 모 여행사 대표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전북경찰청은 1일 선물의 대가성이 의심되는 전주지역 총선 예비후보 1명을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16일 유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전북도청·교육청 공무원, 경찰 간부 등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넨 내역과 명단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여행사 대표 유모(53)씨가 작성한 선물 대상자는 총선 예비후보 4명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 400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미 40여명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전직 도의장과 전직 전주시의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선물과 현금을 받은 횟수와 금액, 대가성 여부로 소환 대상자를 선정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신속 민원 업무 협약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와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이용순)는 1일 아름답고 신속한 민원응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부터 맑은물사업소가 상시 전화민원 폭주로 응대가 지연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자원센터에 자원봉사 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이번 협약에 따라 자원봉사자 10명이 요일별로 2명씩 오전과 오후를 나눠 민원응대에 나서게 된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전화민원 지연응대로 빚어진 민원불만 해소는 물론 전화민원 응대의 품질향상 및 친절도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익산 식품클러스터에 식품전용 시험생산시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에 세계적 수준의 식품전용 시험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중소 식품기업의 시제품 테스트에서 소량 생산까지 일괄 지원한다. 8000㎡의 부지에 지상·지하 1층으로 지어지며, 바이오·나노 기술이 적용된 장비와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에 맞는 시설 등이 설치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시험생산 설비가 없어 신제품 개발과 생산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시 공무원 170여명 사랑의 헌혈운동

군산시는 1일 시청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 혈액원과 연계해 '사랑의 헌혈운동'을 벌였다.

이날 시청 직원 170여명은 최근 단체 헌혈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혈액부족이 우려된다는 소식에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단체 헌혈 행사에 참여했다.

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헌혈행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매번 15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시 공직자 250명 혁신마인드 함양 특강

정읍시는 1일 5층 대회의실에서 변명식 (사)중소기업 혁신전략 연구원장을 초청해 담당급 이상 25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변 원장은 '공직자는 윤리바탕 위에 진정성과 핵심 가치로 승부하자'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내장단풍과 정읍사 등 정읍의 대표 브랜드를 현 시대적 변화의 트랜드에 맞출 것을 지적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